



가을날

-헤르만 헤세-

숲 가의 가지들 금빛에 타오를 때
나는 홀로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몇 번이나 둘이서 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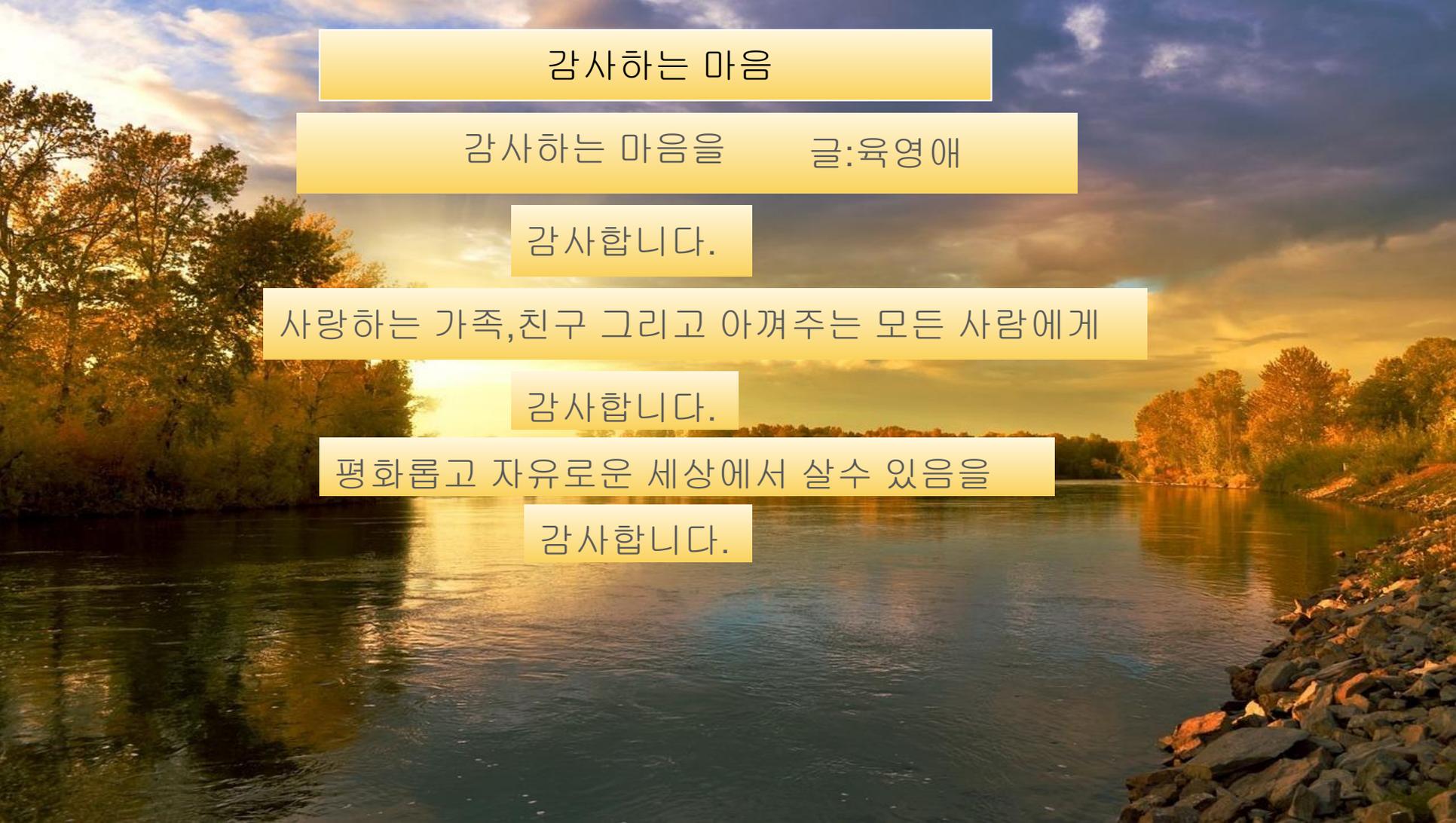
봄비/용혜원

봄비가 내리면
온통 그비를 맞으며
활짝 기지개 펴게 하는 봄비
세상풍경이 달라지고
내마음속에도 흠뻑
내마음속간절하고
꽃으로 피워내고싶다.

어린 벗에게

가끔은 실수하고 서툴러도 너는
사랑스런 사람이라고
지금 그대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 해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글:육영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친구 그리고 아껴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잔소리/나래

는

엄마의 말이
다른쪽으로
빠져나간다.
오늘도 나를 키우며
지나가는 엄마의
말말만 ...



비를 맞으며

이혜인

요즘 울고 싶어도

못우는 것을

빛방울이 눈치 채나 보다

숨박꼭질



글이지영

꼭꼭숨어라
머리카락보일라



나무끝에숨을
동백꽃다찾았다
봄친구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 갈 집이 있다는것

힘들 때 마음 속으로 생각 할 사람이 있다는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것



눈/윤동주

지난 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발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보다



글.그림

권옥

소리똥

학원가는길에 친구가 부른다. 야,왕재수 시금치
내가제일 싫어하는 말이다. 마음이 부글부글 소리똥은 어디에 비워야
시원할까



꽃들에게 인사 하기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하면 안된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해야해
꽃들아 안녕!안녕!

글 김선우

솜사탕

하늘에 솜사탕이

두둥실 떠 있어서

손에서 멀어져 가는

맛있는 솜사탕

글:박연희

내가 꾸민 시를
봐주어서 고맙고
사랑해~!

솜
사탕



흔들리며 피는 꽃

찾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느냐

작가:도종환



기도/나태주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광귀신

글: 김선영

방긋

새해가 웃으며 인사한다

중독/강기화학교

틈만나면 중독 이라하지만

난, 학교 갔다와서 할뿐

난, 학원 갔다와서 할뿐

난, 밥먹고 할뿐

난, 똥싸고 할뿐

학교도 안가 학원도 안가 밥도 안먹어 똥도안싸

틈도없이 하는게 중독이지



물고기

물고기



시 제목

시인

시

○모르알;모리너○림;○

<https://pixabay.com/ko/photos/%EB%8A%91%EB%8C%80-%EC%88%B2-%EB%83%89%EB%9E%AD%ED%95%9C-%EC%99%B8%EB%A1%9C%EC%9B%80-1341881/>